

치위생과 학생의 감성지능과 학습몰입 및 학업탄력성의 융합적 관련성 연구

김영신, 이정화*
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The study on the convergence relationship of emotional intelligence, learning flow and academic resili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Young-Sun Kim, Jung-Hwa Lee*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aegu Health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치위생과 재학생의 감성지능과 학습몰입 및 학업탄력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구 소재 D대학 치위생과 1~3학년 31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8년 5월 한 달간 자료를 수집하였다. SPSS window ver. 18.0 프로그램으로 기술통계, ANOVA, 피어슨 상관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치위생과 재학생들의 감성지능과 학습몰입, 학업탄력성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학습몰입과 학업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공관련 학습몰입과 학업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감성지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개편을 제언한다.

주제어 : 감성지능, 학습몰입, 학업탄력성, 치위생과, 융합

Abstract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studying the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learning flow and academic resilience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students. The study involved in 319 students from 1st grade through 3rd grade in Daegu health college who filled out questionnaire in May, 2018. We are closely analyzed data using SPSS window ver.18.0. After analyzing the results, this report shows that there was a strong correlation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learning flow and academic resilience. In addition, the higher the level of emotional intelligence, the level of learning flow and academic resilience was also elevated.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standardized programs and curriculum needs to be adopted in school.

Key Words : Emotional intelligence, Learning flow, Academic resilience, Dental hygiene, Convergence

1. 서론

1.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최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치과의료 환경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1]. 특히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 공감적 의사소통 능력이 더욱 강조되면서 치위생 교육기관에서도 대인관계와 의사소통능력을 핵심역량으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치과위생사는 보건전문직으로서 전공을 선택하기 전 신중히 고려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한 전공분야에서 일체감 및 애착을 가지고 몰입

*Corresponding Author : Jung-Hwa Lee(leejh0704@hanmail.net)

Received August 12, 2019

Accepted October 20, 2019

Revised September 11, 2019

Published October 28, 2019

하는 경험이 필요하다[2]. 치위생 전공자는 학업부담은 물론 면허취득을 위한 전공수업을 해나가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학업 및 사회생활로 관련된 대인관계, 취업 등 확대된 인간관계를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갖는다[3].

선행 연구에서 정 등[4]은 감성지능이 심리적 성향 중 긍정적 감정의 측면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 조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대상자와 관계형성을 위한 공감적 의사소통 능력에 필수적이라 하였다. 따라서 치과진료 현장에서 환자를 대면하는 치위생 전공자도 대학생활 및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하는 능력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활용할 수 있는 높은 감성지능이 필요하다. 높은 감성지능을 가진 사람은 근무환경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며[5],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6],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도 높았다[7].

전공몰입이란 개념은 조직몰입의 개념에서 나와 전공 분야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갖고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할 의지를 가지는 것[4]으로 학습자가 여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참여하는 수준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8]. 장[9]은 대학생 및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몰입의 의미와 학습의 영향에서 학습자가 완전한 몰입 상태로 학습 활동을 한다면 집중한 만큼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고, 김과 동[10]은 전공수업에서 몰입을 경험하게 되면 진로결정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몰입은 학습에 대한 내재동기를 높이기 때문에 높은 학업 성취로 연결되며, 실제로 대학생에서 학습몰입 정도가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높았다. 그리고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를 감성지능으로 보고, 효율적인 사회적 상호작용과 학업의 성공적 적응을 위한 필요한 능력으로 효율적인 그룹참여들을 포함한다. 김[11]의 연구에서도 학습자의 감성지능과 영어에 대한 학습몰입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교 현장에서 영어에 대한 학습몰입을 통해 영어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영어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써 감성지능 교육과 훈련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다른 학생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학습자일수록 학습에 관한 규칙, 학습에 대한 노력과 집중 등에 관한 몰입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 밝힌바 있다.

학업탄력성은 본래 회복탄력성에서 유래되어 상황의 변화에 쉽게 적응, 회복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의 의미로 활용되기도 한다[12]. 하지만 지금까지 대학생의 회복탄

력성에 관한 연구[13]는 개인의 기질이나 특성과 같은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한 것이 많고, 탄력성의 일반적인 측면만을 다루고 있으며 대부분 간호학과 학생들의 연구로 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공수업 몰입과 4차 산업 혁명에서 강조되고 있는 감성 지능, 치위생과 학생들의 긍정적인 태도와 복합적인 자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학업탄력성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융합형 치위생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학생 교육 및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5월 한 달간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D대학교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한 후 동의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목적과 작성방법을 설명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조사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효과크기 0.50, 유의수준 0.05, 통계적 검정력 0.95를 적용한 결과 필요 최소 표본수는 190명으로 나타났으나 무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을 고려하여 330부를 조사하였고, 그 중 319부(회수율 96.7%)를 최종적으로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연구도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학년, 경제적 상태, 전공만족도를 사용하였다. 학년은 '1~3학년', 경제적 상태는 '상, 중, 하' 전공만족은 '전혀 만족하지 않다' 1점부터 '매우 만족 한다' 5점으로 구분하였다.

2.2.1 감성지능

감성지능 측정도구는 Wong과 Law[14]가 개발한 WLEIS(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를 황[15]이 사용한 것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하위영역은 총 4개영역으로 자기감성이해 4개 문항, 타인감성이해 4개 문항, 감성조절 4개 문항, 감성활용 4개 문항으로 총 16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는 Likert 척도이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 0.832 이었다.

2.2.2 학습몰입

학습몰입 척도는 석[16]이 학습상황에서 학습몰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몰입과 관련된 문헌연구와 기존의 몰입척도 문항들을 토대로 제작한 것을 수정하여 이[17]가 사용한 것을 활용하였고, 하위영역은 총 9개 영역으로 도전과 능력의 조화 4개 문항, 행동과 의식의 통합 5문항, 명확한 목표 2문항, 구체적인 피드백 5문항, 과제에 대한 집중 3문항, 통제감 2문항, 자의식의 상실 5문항, 시간감각의 왜곡 3문항, 자기목적적 경험 6문항으로 총 3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는 Likert 척도이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 0.937 이었다.

2.2.3 학업탄력성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직업을 고려하여 대학생의 학업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김[18]이 개발한 학업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긍정적 태도, 자기통제, 학습조절, 과제책임감, 친구지지, 부모지지의 6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 '전혀 만족하지 않다' 1점부터 '매우 만족 한다' 5점으로 구분하였다. 산출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계수는 0.720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 0.922 이었다.

2.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dow ver. 18.0 Program으로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일부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학습몰입과 학업탄력성 정도를 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이용한 평균치 차이를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감성지능과 학습몰입 및 학업탄력성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Pearson's 상관분석을 이용하였고, 치위생과 학생들의 감성지능이 학습몰입 및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3학년

120명(37.6%)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수준은 '중' 203명(63.6%)이 가장 높았다. 치위생과 전공만족도는 '높다' 156명(48.9%), '보통' 145명(45.5%), '낮다' 18명(5.6%), '순이었다. 동아리 활동은 '한다' 39명(12.2%), '거주지는 '자가' 178명(55.8%), '자취' 122명(38.2%)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tudy participants

Variables	Division	N	%
Gender	Male	7	2.2
	Female	312	97.8
Grade	Freshman	97	30.4
	Sophomore	102	32.0
	Junior	120	37.6
Economic status	High	11	3.4
	Middle	203	63.6
	Low	105	32.9
Major Satisfaction	Good	156	48.9
	Normal	145	45.5
	Pool	18	5.6
Circle	Yes	39	12.2
	No	280	87.8
Residence	One's own house	178	55.8
	Cook food for oneself	122	38.2
	etc	19	6.0
Total		319	100

3.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학습몰입, 학업탄력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학습몰입, 학업탄력성은 Table 2와 같이 경제적 상태가 높을수록 감성지능과 학업탄력성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 0.05$),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감성지능, 학습몰입, 학업탄력성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3.3 감성지능, 학습몰입, 학업탄력성 상관관계

대상자의 감성지능, 학습몰입, 학업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Table 3과 같이 감성지능은 학습몰입($r = .757, p < .01$) 및 학업탄력성($r = .708, p < .01$)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학습몰입과 학업탄력성($r = .737, p < .01$)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학업탄력성 및 학습몰입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4 감성지능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감성지능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4와 같이 나타났으며, 감성지능 하위변수인 자기감성이해, 타인

Table 2. Emotional intelligence, learning flow and academic resil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Emotion intelligence		Learning flow		Academic resilience	
		M±SD	p	M±SD	p	M±SD	p
Gender	Male	2.96±0.32	0.802	3.41±0.49	0.600	3.60±0.49	0.691
	Female	2.77±0.35		3.05±0.46		3.34±0.43	
Grade	Freshman	2.79±0.35	0.708	3.04±0.45	0.448	3.33±0.42	0.871
	Sophomore	2.75±0.36		3.02±0.49		3.35±0.46	
	Junior	2.78±0.34		3.09±0.44		3.36±0.42	
Economic status	High	2.93±0.29	0.064	3.19±0.39	0.582	3.57±0.45 ^b	0.013**
	Middle	2.79±0.32		3.05±0.45		3.38±0.43 ^{ab}	
	Low	2.72±0.39		3.04±0.48		3.26±0.42 ^a	
Major Satisfaction	Good	2.87±0.33 ^b	0.000***	3.02±0.46 ^b	0.000***	3.47±0.43 ^b	0.000***
	Normal	2.71±0.34 ^b		2.93±0.42 ^a		3.24±0.40 ^a	
	Pool	2.51±0.35 ^a		2.79±0.43 ^a		3.12±0.47 ^a	
Circle	Yes	2.79±0.37	0.753	3.01±0.40	0.571	3.31±0.44	0.572
	No	2.77±0.35		3.06±0.47		3.35±0.43	
Residence	One's own house	2.79±0.30 ^{ab}	0.005**	3.03±0.42 ^a	0.039**	3.35±0.39 ^a	0.011**
	Cook food for oneself	2.71±0.38 ^a		3.05±0.48 ^a		3.30±0.47 ^a	
	etc	2.97±0.45 ^b		3.31±0.60 ^b		3.64±0.53 ^b	
Total		2.77±0.35		3.06±0.46		3.35±0.44	

*p<0.05, **p<0.01, ***p<0.001
 by the Independent one-way ANOVA test at α=0.05
 a,b,c,d Means followed by Scheffe' multiple comparison

Table 3.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learning flow and academic resilience

	Emotion intelligence	Learning flow	Academic resilience
Emotion intelligence	1		
Learning flow	.757**	1	
Academic resilience	.708**	.737**	1

*p<0.05, **p<0.01
 by th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감성이해, 감성조절, 감성활용 등을 독립변수로 학습몰입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Table 4와 같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70.3%였다. 이는 대상자의 감성지능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몰입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감성지능 중 감성조절이 학습 몰입에 가장 큰 영향(β=0.639, p<0.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6 감성지능이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감성지능의 하위변수를 독립변수로 학업탄력성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Table 5와 같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5.1%였다. 이는 대상자의 감성지능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탄력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감성지능 중 감성활용이 학업탄력성에 가장 큰 영향(β=0.370, p<0.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learning flow

	B	S.E	β	t	p
Constant	16.278	4.280		3.804	.000
Self emotional	.932	.236	.139	3.957	.000
Others' emotional	.039	.234	.005	.165	.869
Use of emotional	1.339	.217	.226	6.176	.000
Emotional control	4.419	.252	.639	17.508	.000
R ² : 0.703, F(p) : 184.891(0.000)					

by multiple liner regression analysis, 95% confidence interval

Table 5.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academic resilience

	B	S.E	β	t	p
Constant	29.138	4.146		7.029	.000
Self emotional	.998	.227	.189	4.387	.000
Others' emotional	.395	.227	.070	1.740	.083
Use of emotional	1.717	.208	.370	8.236	.000
Emotional control	1.922	.244	.352	7.878	.000
R ² : 0.551, F(p) : 96.077(0.000)					

by multiple liner regression analysis, 95% confidence interval

4. 논의

학습자들의 학습 성과를 높여 미래 사회에 잘 적응하고 문제해결력을 높일 수 있는 학습지원 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재학 중의 전공몰입은 취업의 성공과 관련성을 가지며,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행과 관련할 것으로 예상된다[19]. 따라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강조되고 있는 감성지능, 전공수업 몰입과 치위생과 학생들의 긍정적인 태도와 복합적인 자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학업탄력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융복합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한 치위생과 학생의 교육 및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 되었다.

감성지능 전체 평균은 2.77 ± 0.35 점이었으며, 학습몰입은 3.06 ± 0.46 점, 학업탄력성은 3.35 ± 0.44 점으로 조사되었다. 감성지능에서 한과 김[7]의 연구 평균 3.33점에 비해 낮게 나타났지만 4개의 하위항목 중 타인감정이 해가 가장 높게 나타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 등[20]의 연구에서도 타인감정이해 3.70점으로 가장 높았고, 강[21]의 연구(7점 기준)에서 자기 감성인식은 5.13, 타인 감성인식은 4.95, 감성 활용은 4.28, 감성 조절은 4.08로 조사되어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감성조절과 감성활용이 낮은 것은 일치하였다. 감성활용과 감성조절은 감성지능 구성요소 중 상위 단계[22]로 예비치위생사의 감성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두 항목을 증진시키는 것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유 등[23]은 교수자와 긍정적인 피드백과 감성적 교류를 나누는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감성활용 능력이 향상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감성지능은 조직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자원으로 직무만족 및 조직유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무력감, 스트레스, 불안 등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완충 작용으로써의 역할도 하고 있다[24]. 또한 김[25]의 연구에서도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 이상의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감성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보였다. 치과위생사 업무 특성상 환자와 보호자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감성조절, 감성,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습몰입 전체 평균은 3.06점으로 일반대학생 대상의 홍[26]의 연구 2.87점보다는 높았으나, 강과 방[27]의

연구 3.35점, 이[28]의 연구 3.63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치위생 전공자가 일반전공자보다 명확한 목표와 합리적인 태도를 볼 수 없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전공과목에서의 몰입경험은 전공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습득하여 그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어 진로 태도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 또한 학습몰입은 대학생들의 적응과 부적응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은 학생들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22]. 따라서 학생들이 몰입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과 대학생활 및 전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학 본부 및 학과에서는 감성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학습몰입은 원만한 학업 수행, 성적 향상 및 학습지속에서도 핵심적 기능[29]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 치위생과 학생들의 학업 완료, 진로태도, 경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도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업탄력성에서는 3.35점으로 김[30]의 연구 3.62점, 김[18]의 연구 3.71점, 정[31]의 연구 3.72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Foshee[32]의 연구에서 학업탄력성이 높은 학생들이 학업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Solomon[33]은 학생들의 학업탄력성과 학업 스트레스의 음의 관계, 학업성취와는 양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스트레스를 줄여 진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갖게 하는 등 치위생 전공자들의 학업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학업 탄력성은 높은 학업성취와 성적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성공과 취업 후 직업영역에서의 성취에도 긍정적인 연관을 보인다고 하였다[34]. 학업 탄력성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학업 동기는 증가[35]하며 다른 연구에서도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정적인 관계로 설명하여 두 변수의 상승은 학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36]. 따라서 학습 몰입 및 학업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처방적인 교육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감성지능은 학습몰입 및 학업탄력성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특히 감성조절과 감성활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자기 감성을 통제할수록 학습에 대한 흥미와 기쁨 등의 긍정적인 몰입이 높아지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동기를 부여하며, 자신을 유능하다고 생각할수록 학업탄력성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학업성취를 위해 학습몰입과 학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성지능 교육

과 훈련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과 또는 비교과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일부 지역의 대학교를 편중하여 추출하였고, 대상자들의 변수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조사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과 학습몰입 및 학업탄력성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후후 타 대학 타과의 학생들과의 관계도 검증할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2018년 5월 한 달간 대구광역시 소재 D대학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과 학습몰입 및 학업탄력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319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감성지능 전체 평균은 2.77점, 학습몰입 평균은 3.06점이었고, 학업탄력성에서는 3.35점이었다.

2. 치위생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련 요인에 대한 결과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높은 감성지능과 학습몰입, 학업탄력성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거주상태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3. 대상자의 감성지능은 학습몰입($r = .757, p < .001$) 및 학업탄력성($r = .708, p < .001$)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학습몰입과 학업탄력성($r = .737, p < .001$)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4. 감성지능 중 감성조절이 학습 몰입에 가장 큰 영향($\beta = 0.639, p < 0.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70.3%였다. 감성지능 중 감성활용이 학업탄력성에 가장 큰 영향($\beta = 0.370, p < 0.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5.1%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대학생들의 학습몰입 및 학업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증진 프로그램도 중요하나 구조적 관계를 고려한다면 감성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프로그램이 대학차원에서 지지된다면 대학생들의 증도탈락률도 줄이고 원만한 대학생활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REFERENCES

- [1] J. H. Yoo & J. H. Kim. (2016). A Study on the Satisfaction and Stress Factors of Clinical Practice for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6(1), 62-69.
DOI: 10.17135/jdhs.2016.16.1.62
- [2] G. O. Jung & G. Y. Choi. (2014). Effect of Dental Hygiene Students' Major Flow Experience on Career Attitude Maturity.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6), 281-287.
DOI : 10.5392/JKCA.2014.14.06.281
- [3] G. W. Sue & M. J. Kwon. (2016). Effect of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resilience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2), 221-234.
- [4] J. C. Jung, S. I. Lee & M. K. Park. (2012). The Effects of Academic Major Commitment, Job Search Efficacy on the Job Search Behavior. *Korean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27(3), 229-250.
- [5] I Nikolaou & I Tsaousis. (2002).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workplace: exploring its effects on occupational str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Organizational Analysis*, 10(4), 327-342.
DOI : 10.1108/eb028956
- [6] E Sener., O Demirel & K Sarlak. (2009). The effect of the emotional intelligence on job satisfaction. *Stud Health Technol Inform*, 146, 710-711.
- [7] J. H. Han & K. E. Kim. (2015). Interpersonal skills caused by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 resilience of students majoring in dental hygiene.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5(6), 746-752.
DOI : 10.17135/jdhs.2015.15.6.746.
- [8] C. R. Steele & C. J. Fullagar. (2009). Facilitators and outcomes of student engagement in a college setting. *The Journal of Psychology*, 143(1), 5-27.
- [9] E. J. Jang.(2002). The Effects of Learning Strategy and Flow on the Learning Achievement in e-Learning Community.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18(3), 27-54.
- [10] H. J. Kim & S. L. Do. (2009).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Flow Experience on Career Attitude Maturity.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and Learning Consultation.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1(2), 85-99.
- [11] Y. K. Kim. (2006). *Relationships among flow related variables, flow level, achievement in online learn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 [12] H. R. Bae.(2012). An Effect of College Students' Resilience on Perceived Career Barriers. MA thesis, Kyonggi University, Kyonggi.
- [13] M. S. Park, C. U. Oh & H. K. Kang. (2017).

- Relationships among Bullying, Ego-Resilience, Perceived Stress, and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2), 73-81.
DOI : 10.15207/JKCS.2017.8.2.073
- [14] C. S. Wong & K. S. Law. (2002).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13(3), 243-274.
DOI: 10.1016/S1048-9843(02)00099-1.
- [15] P. J. Hwang. (2007). A Study on the Influence of An Employee's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 [16] I. B. Seok. (2007). The structure of learning flow: scale, character, condition, involvement.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17] J. H. Lee. (2009).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Mastery Goals Orientation, Academic Self-Efficacy, Self-Determining Motivation to Learn and Learning Flow.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6(3), 5-26.
- [18] N. R. Kim. (2008).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ity of the Scale of Academic Resilience. Ph D Thesis, Sookmyung University, Seoul.
- [19] J. S. Yu & S. Y. Choi1. (2011). The Effects of Major Commitment Level by Department Climate among Students at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1(2), 99-105.
- [20] O. S. Lee, M. O. Gu & M. J Kim. (2015).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 resilience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e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6), 3902-3910.
DOI : 10.5762/KAIS.2015.16.6.3902
- [21] H. J. Kang. (2016).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6(4), 625-34.
DOI : 10.13065/jksdh.2016.16.04.625
- [22] Y. H. Kang & E. J. Oh. (2015).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High School Girl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8), 5152-5159.
DOI: 10.5762/KAIS 20151685152.
- [23] Y. E. Ryu, I. A Kang & Y. C. Jeon. (2018). Developm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through A Maker Education Program Based on Design Thinking Process for Undergraduate Students in an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7), 163-175.
DOI : 10.15207/JKCS.2018.9.7.163.
- [24] Y. J. Jeon & S. B. Lee. (2011). The effects of employees emotional intelligence upon job satisfaction and customer orientation in the deluxe hotel.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5(3), 109-127.
- [25] J. Y. Kim. (2018). Convergence Effects of Empathy Ability, Emotional Intelligence on Emotional Labor in some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5), 53-60.
DOI: http://www.earticle.net/Article/A329689
- [26] M. K. Hong. (2015). The Impact of the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on the Learning Flow: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Capital.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29(6), 1-23.
- [27] M. S. Kang & E. R. Bang.(2014). The Analysis on the Causal Model between Self-directedness, Learning Flow, Career Decision and Self-efficacy,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Psychological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4), 443-467.
- [28] S. J. Lee. (2011). The Effect of Flow on Learning and Self-efficacy on College Adap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5(2), 235-253.
- [29] J. C. Perry. (2008). School engagement among urban youth of color: criterion pattern effects of vocational exploration and racial identity.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4, 397-422.
DOI: 10.1177/0894845308316293
- [30] K. Y. Kim. (2016). *Effects of Academic Resilience on Academic Burnout in University Students : major and grade difference*.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31] S. H. Jung, & E. S. Lee. (2015). The Relationships between Adaptive Perfectionism, Academic Resilience and Self-Regulated Learning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8), 83-103.
- [32] Foshee, C. M. (2013). *Conditions that Promote the Academic Performance of College Students in a Remedial Mathematics Course: Academic Competence, Academic Resilience, and the Learning Environment*. Arizona State University. Educational Technology, Dissertation.
- [33] Solomon, O. (2013).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perceived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anchester Metropolitan University, Manchester.
- [34] Yuan, H, Williams, B. A & Fan, L. (2008). A systematic review of selected evidence on developing nurs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through problem-based learning. *Nurse Education Today*, 28(6), 657-663.
DOI: 10.1016/j.nedt.2007.12.006
- [35] M. S. Kang, Y. J. Park, S. Y. Choi & S. J. Lee. (2018). The Effects of PBL(Problem-Based Learning) on Academic Resilience, Learning Flow, and Academic Motiv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6),

291-298.

DOI: 10.5762/KAIS.2018.19.6.291

- [36] Borman. G. D & Overman. L. T. (2004). Academic resilience in mathematics among poor and minority students,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104(3), 177-195.
DOI: 10.1086/499748

김 영 선(Young-Sun Kim)

[장학원]



- 1998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위생과학과 (보건학 석사)
- 2010년 2월 :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한방자원학과 (의학박사)
- 1999년 3월 ~ 현재 : 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 관심분야 : 임상치위생, 디지털 치의학,

구강건강증진

· E-Mail : kimysn@dhc.ac.kr

이 정 화(Jung-Hwa Lee)

[장학원]



- 2002년 2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위생과학과 (보건학 석사)
- 2010년 8월 : 영남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 박사)
- 2004년 3월 ~ 2013년 8월 : 포항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 2013년 9월 ~ 현재 : 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임상치위생, 구강보건정책, 치의학융합

· E-Mail : leejh0704@hanmail.net